

1985년도 1월 육계전망

장 민 기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본회 이사, 버들농원 대표)



○ 사육동향

표 1. 육계 전용종 초생추 생산실적

(단위 : 만수)

월	1	2	3	4	5	6
83	859	1,028	1,313	1,400	1,561	1,542
84	800	1,046	1,433	1,480	1,620	1,331
월	7	8	9	10	11	12
83	1,446	1,261	1,145	1,136	1,037	837
84	1,158	1,113	1,001	984	972	1,065

표 2. 육계용 사료 생산실적

(단위 : 톤)

년도	사료종류	1	2	3	4	5	6
83	전 기	18,797	20,757	27,267	28,096	29,188	32,068
	후 기	29,412	31,416	41,536	43,829	43,903	48,376
84	전 기	13,383	12,907	23,297	26,745	29,911	29,306
	후 기	25,858	16,454	19,664	30,225	41,969	44,619
년도	사료종류	7	8	9	10	11	12
83	전 기	28,584	26,588	23,893	22,480	20,323	17,905
	후 기	49,569	44,930	48,919	43,342	37,504	38,786
84	전 기	23,688	20,141	19,460	19,424	19,602	
	후 기	41,494	28,825	29,109	29,429	28,118	

표 3. 표본 10개 사료메이커 생산량 84년 4/4 분기

년	월 사료	10 월			11 월			12 월		
		초 순	중 순	하 순	초 순	중 순	하 순	초 순	중 순	하 순
83	전기	2,300	2,479	2,821	2,510	2,666	2,589	2,127	2,127	2,128
	후기	4,893	4,786	5,058	4,576	3,346	3,962	4,518	4,518	4,519
84	전기	2,337	2,461	2,524	2,328	2,173	2,264	1,946	2,425	2,865
	후기	3,216	3,214	3,145	2,975	2,979	3,000	3,245	3,472	3,517

표 4. 년도별 월별 육계병아리 생산잠재력

(단위 : 만수)

월	82	83	84	85
1	979	1,230	1,589	1,322
2	1,085	1,335	1,668	1,292
3	1,158	1,399	1,773	1,332
4	1,104	1,523	1,787	1,368
5	1,248	1,563	1,821	1,388
6	1,257	1,560	1,839	1,409
7	1,218	1,519	1,792	
8	1,127	1,445	1,672	
9	1,046	1,352	1,496	
10	978	1,270	1,352	
11	981	1,325	1,310	
12	1,093	1,433	1,331	
계	13,274	16,954	19,390	

○ 가격전망

1) 초생추 생산실적이 83년도 11월의 1,037만수에 비해 84년도 11월은 972만수로 6.3%가 감소된 점으로 보아 84년도 1월 가격(kg 당 1,000~1,100 원선) 수준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2) 사료생산 실적으로(표2 참조) 보아도 전년도 동기보다는 생산량이 적으므로 육계가격 형성은 희망적이라 하겠다.

3) 초생추 생산 잠재력은 작년도 하반기 과감한 종계 도태 등으로 9월 이후 적정 수준으로 입식이 되어 있어 금년 1월 및 2월 중순까지는 가격이 희망적이다.

그러나 12월말부터 전월대비 20% 이상의 생산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더우기 1월부터는 생산잠재력(표 4 참조) 전량의 초생

추가 생산될 조짐이어서 육계농가의 적절한 입추계획이 요망된다.

○ 필자주

1) 지면관계로 “년도별·월별 가격동향표”는 생략하였다. (다음호에 지면이 허락하면 표를 게재할 예정임.)

2) 다음호부터는 년중통계를 생략하겠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게재할 예정이다. 통계의 관련유지를 철저히 하여 비교, 판단에 참고하기 바란다.

3) 좀 더 상세히 토의코자 하는 독자는 매월 27일 오후 2시에(공휴일은 순연) 협회 육계분과위원회 문을 두드리면 된다. 항상 육계 경영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석자력에 구애없이 육계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